

기독교와 실용주의 (實用主義)

김성린
(고신대학 교수)

오늘날 ‘프래그마티즘’(Pragmatism)이라고 불려지는 실용주의 철학(實用主義哲學)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토양(土壤)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 피운 미국의 대표적 철학이다. 피어스(C. S. Pierce), 제임즈(W. James), 듀우이(Dewey) 등 19세기의 미국 철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체계화된 이 철학이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의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짐에 따라서 미국인의 의식과 행동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증대와 더불어 이 철학이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6·25 동란 등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세계 자유 애호 국가들에 대한 역할의) 전반에 걸쳐서 미국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실용주의 철학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가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크리스천의 의식과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신, 불신(信, 不信)을 불문하고 현대에 사는 우리 나라 사람치고 프래그마티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물론 프래그마티즘이 우리 나라에 소개되기 이전부터 “뽕 잡는 것이 매라”든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들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 또 그러한 말들에는 그나름대로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용주의에서는 “실용성”이 곧장 진리 판단의 기준(規準)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프래그마티즘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특별히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진리의 기준(基準)이 실용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하는 데 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1. 관념의 진리성

피어스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이다는 명

제(命題)란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람에게 어떤 전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 추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주어진 전제, 즉 어떤 관념은 타당한 관념이 된다.

이러한 전제를 그는 추론의 지도 원리(guiding principle)라고 부른다. 이 진도 원리는 비유컨대 대해(大海)를 항해하는 선원의 항해술과도 같다. 이 지도 원리를 확립하고 있는 정신 상태를 '신념(belief)'이라고 한다. 신념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는 데서 습관(habit)이 형성된다.

인간의 정신은 이러한 확신에 찬 신념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의 전체가 탐구(inquiry)며 사색(thought)이다.

피어스에 의하면 탐구와 사색의 유일의 기능은 행동의 규칙으로서 습관 또는 신념의 수립에 있기 때문에 행동에 의하지 않고서는 관념과 신념은 생각할 수 없다. 관념도 신념도 행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념의 의미란 결국 그 관념이 행동에 대하여 갖는 의미가 된다. 즉 관념의 의미는 실천적으로 그 관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규정된다.

이렇게 볼 때 어떤 관념은 타당하고 어떤 관념은 타당하지 않다는 기준(規準)이 관념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관념에 따라서 행동해 본 결과 관

념의 타당성 여부가 된다.

피어스는 관념의 명석화(明皙化)의 '과학적 방법'을 제창한다. 그는 여기서 '고집의 방법(method of tenacity)'-바르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완고하게 집착함으로써 다른 견해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는 방법-과 '권위의 방법(method of authority)'-초개인적인 어떤 이론에 기초하여 형성된 권위주의적인 방법-과 '선험적 방법(a priori method)' 실증적으로 관찰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선험적(先驗的)인 기본 원리에 따라서 이념과 일치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관념의 명석을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객관적인 보편적 신념을 얻을 수 없고 '과학적 방법(method of science)'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실험적 음미(吟味)를 그쳐서 그 결과를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념의 진위(眞僞)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관념과 사실의 일치가 관념의 진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어떤 것이 견고하다"는 명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물질과 함께 뒤섞어 놓고 휘저은 결과에 대한 관념을 종합하여 얻은 대상에 대한 성질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하여 쉽사리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결과에 관한 우리의 관념이 그 대상에 관한 우리의 관념의 전부가 된다." 이러한 피어스의 관념 명

석화의 방법은 주관적 경험주의도 아니고 선형적 방법도 아닌 실증적 실용주의(實證的實用主義)의 입장이다.

칸트는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도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최상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하여 피어스는 보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관념의 진리성을 명석케 하려 했다.

그에게 있어서 신념이나 관념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과 실험을 통하여 진리로 접근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나의 신념은 관념에 있어서는 정지점(停止點)이자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리하여 과학적 진리 탐구에 있어서는 어떤 관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거나,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거나, 어떤 명제는 선형적으로 확실한 진리로 보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어떤 법칙이나 규준에 의하여 진리의 최종적 정식화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피어스의 관념 타당화의 방법에 많은 장점이 있음은 사실이다. 유한한 인간이 실험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는 선형적으로 사유(思惟)의 법칙이 있어서 대상에 법칙을 부여한다는 칸트의 인식 주관주의(認識主觀主義)가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유 주관의 판단 기능을 선형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은, 인간의 인식의 유한성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한다 면 이 점에서 피어스는 칸트보다 인식에 있어서의 인간의 유한성에 보다 철저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관념들, 예를 들면 신(神) 관념이나 자아 관념 같은 것은 경험을 통하여 획득된 것이 아니고 생득적(生得的)인 관념(innateidea)들이며, 그 진위는 피어스가 말한 '과학적 방법'으로 확증되지 않는다. 또 제임스에 의하면 관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념 자체의 내용이 아니고 관념의 기능적 용도와 가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관념이 우리를 어떤 결과로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관념의 진리성이 판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념이나 개념은 경험을 통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경험에 의하여 그 진위가 검증되어야만 한다.

이때 경험을 인도하는 원리가 관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관념은 독자적인 기능과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위의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그 진위가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근대 그 자연과학의 방법의 일반화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과학적 방법이 과학 발전에 공헌한 공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총합체로서의 인생은 과학적인 경험의

방법으로 명석 판명하게 되지 않는 보다 복잡하고도 고차원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고차원의 영역은 신령한 세계며 신앙의 세계이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한다(롬 1:19-23).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나 사상들은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진리성이 명석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로 받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실천하게 된다.

2. 진리의 실용성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래그마티즘에서는 관념의 진리성의 기준이란 그 관념이 가져다 주는 결과에 따라서 검증된다.

제임즈는 여기에 공리주의적(功利主義的)인 색채를 가미시켜서 진리론을 전개한다. 그는 피어스가 제창한 실험적인 실증의 의미를 확대하여 관념의 진리성은 그 관념에 의하여 경험이 잘 인도되어지는가? 즉 경험계의 통화(通貨)로서 그 진리의 현금 가치(유효성)가 얼마나 되는가를 문제 삼는다.

종래의 합리론자들은 진리를 관념

과 존재의 일치로 생각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란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 했다).

제임즈는 일치의 의미를 관념이 존재를 단순히 모사(模寫)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고 그 관념에 따라가면 그 관념이 애초에 지향했던 실제적 결과로서의 실재에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예컨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오솔길을 따라가면 인가(人家)에 도달될 수 있으리라는 관념에 따라서 오솔길을 따라가본 결과 마침내 인가에 도달했다 하면 그 관념은 바른 관념이었으며 이 관념이 진리를 야기(惹起)케 한 것이다. 이때 진리란 처음부터 정해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일어나며(happen) 되어질 것이다(become).

이러한 의미로서의 관념과 실재의 일치를 초래케 하는 기능이야말로 관념의 진리성의 불가결의 조건이자 진리의 효용성이다. 진리의 진리성은 관념에 내포된 부동의성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진리로 하여 가는 과정, 진리의 진리화의 과정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임즈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유용하며 유용하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관념이 진리가 되는 것은 그것이 행위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리관을 종교에 적용을 시

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관념이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한에 있어서 진리가 된다.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도 비록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신을 믿음으로써 정서적으로나 정신적 만족(emotional, spiritual satisfaction)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진리는 이제 실재가 아니고 실재에 대한 우리의 신념(belief)이다. 진리란 일찌기 베이컨이 이도라론(論)에서 지적하였듯이 신용을 토대로 하여 적용되는 화폐와 같다. 화폐 자체의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화폐의 가치를 신용해 주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진리란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가서 세계를 점차적으로 보다 좋은 고장으로 개량하여 간다. 여기에 프라그마티즘의 낙관주의와 인문주의적 개량주의의 세계관의 기초가 있다. 프라그마티즘의 진리관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듀우이에 의하여 도구주의에까지 발전된다. 그는 생물학적 진화론의 사상을 받아들여 지성이란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자연적 환경과의 교섭에 있어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형을 잃고 불안정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탈출하려하는 탐구와 모색이다.

따라서 지성은 생활을 위한 도구며

관념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기능 또는 유용성에 있다. 지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그것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행동 양식을 계획하는 창조적 기능이다.

프라그마티즘에서 진리의 현실적 유용성을 강조한 것은 이 철학이 갖는 장점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유한한 인간이 주어진 배경에 적응하면서 한편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관념이나 이론의 실효성일 것이다. 제아무리 빈틈 없이 체계화된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효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란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신이 된다는 헤겔의 관념론이 세계 대전을 경험한 현대인에게 얼마나 공허한 이론으로 들려지지 않았는가!

프라그마티즘은 적어도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기준하여 생각할 때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신 관념은 실증적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진위가 검증되거나 결과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성에 심어진 생득 관념(生得

觀念)이다. 이 관념의 진위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심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 주신 신 관념도 선해야 하며 따라서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는 선한 관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

또 프래그마티즘에서는 진리의 진리되는 기준을 현실적인 삶의 실용성에 두고 있다.

우리는 진리가 인간의 삶과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삶의 내용이 진리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진리에 따라 살 때 결과적으로 참된 삶이 되는 것이지 삶의 현실적인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서 프래그마티즘의 진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는 철저한 결과론자들의 모인

단체가 될 것이며 원리는 무시되고 방법론만 성행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목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연보를 많이 하게 하고 교회의 건물을 크게 치으면 그것이 교회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것들이 교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의 근본 정신은 무시한 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목회를 한 결과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목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록 교회의 성장이 느리고 부흥이 빨리 되지 않더라도 순수한 도의 뜻을 교인들에게 먹이고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에 따라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 주신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개혁 신앙의 표본인 칼빈의 후예-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타고 간(1620년) 메이플라우어호를 연상케 한다(비록 그 실물 사진은 아니지만).

* 표지 설명 *

이는 오늘날 미친 과도 같은 최악의 물결과 개혁 신앙에 상충되는 모든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는 개혁 신앙자들이 마침내 이상(理想)의 신대륙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한다. 따라서 본지(『개혁신앙』)의 이상을 보여 준다.

/// 신학 논문집 소개 ///

현대 기독교 사상 비판

개혁주의신행협회 간행/이보민 저 / 값 5,000원

- 제 1 부 「현대 신학 사조의 비판」(11편)
- 제 2 부 「현대 사회 사상의 비판」(9편)
- 제 3 부 「현대 윤리 사상의 비판」(7편)
- 제 4 부 「기독교 사상사 고찰」(12편)